



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 확대 종합건강검진, 결혼·출산 지원 등

건설근로자공제회(이사장 권영순)는 분진,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 환경 속에서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 1천200명에게 종합 건강검진을 받는 기회를 무료 제공한다.

검진 항목은 흉부 X선 촬영,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기본 검진과 MRI, CT, 초음파 검사, 대장내시경 등 선택 검진이 포함된다.

건설근로자 맞춤형으로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고, 본인이 희망 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도 가능하다.



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(1년) 이상이고, 2018년 적립일 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, 본인이 신청한 후 검진받을 수 있다.

청년층 건설근로자 등의 결혼·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, 출산 장려와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관심에 동참하기 위해 결혼·출산 지원금도 지급한다.

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거나 사유 발생일(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신고일)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, 직전 1년 이내 100일 이상 된 건설근로자다.

공제회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지원금을 사유별 10만원씩 인상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. 결혼지원금은 50만원, 첫째 자녀 출생 시 30만원, 둘째 40만원, 셋째 이상 50만원을 지급한다.

공제회는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총 4천851명에게 14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고, 올해도 1천500명에게 약 6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.

건강검진과 결혼·출산 지원을 신청하려면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(www.cwrma.or.kr/hanaro) 및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및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(등기), 팩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. 신청자격,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. ▼